

문화 자원의 분배 구조 —문화적 자유, 문화 소외, 문화적 분배—

이 강수(한양대 신문방송학과)

I

옛부터 지식(知識)과 정보(情報)는 사회적·정치적·문화적 힘으로서 권력의 주요 기반이 되어 왔으며, 사회통제 수단의 관건이 되어 왔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어떤 사회에서나 지배 계층은 한 사회의 중심적인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 발전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한 지식과 정보의 대량적 생산과 확산은 기존의 지적 독점과 지적 통제 양식에 대한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특히 16세기에 인쇄술의 발명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혁명은 중세에 가톨릭 종교의 승려와 귀족 계급 중심의 지식 독점을 종식시켜 지식과 정보의 해방을 통해서 종교혁명을 야기시켰을 뿐 아니라, 이성적 인간에 대한 사상을 짜트게 했다. 특히 금세기 초에 등장한 신문은 공중(公衆)을 탄생시켰고, 공중의 문화인 민주주의 문화와 여론을 형성하는 기반을 만들었다. 탈드(G. Tarde)는 신문이 소수의 유식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서 공중(public)이라는 이성적 인간에 주목하였다. 그는 근대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신문이 독자로서의 공중에 대하여 공통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공통의 쟁점을 제시하며, 먼 곳에도 의견과 쟁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고, 짧은 시간에 메시지의 전달이 가능함으로써 공중을 무한히 확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공중은 자기의 욕구나 의견을 신문을 통해서 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와 그 범위를 무한히 확대시

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탈드의 확신은 신문이 시민의 행복과 번영을 확보하고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암시해 주었다. 이처럼 신문이 공중에게 부여해 준 낙관적인 전망의 맥락에서 공중이 그들의 기본적 인권(人權)과 자발적 결사의 원리의 실현을 신문에서 찾은 것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신문이야말로 공중의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공중에게는 가장 강한 문화적 무기였다. 원래 탈드가 생각한 공중의 문화는 근대 자유주의적 민주정치의 정치 과정과 더불어 등장하였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성립은 공중 문화의 형성을 이념적으로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 민주정치의 이념하에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자율적인 의사와 행동에 기초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치 과정에 참가하듯이, 공중 문화의 형성도 공중들이 문화 과정에 다 같이 참가하여 문화 내용의 창조자임과 동시에 그 향유자(享有者)로서의 위치를 획득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이는 곧 근대 자유주의적 민주정치가 정치 담당자로서의 공중이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갖게 됨으로써 바로소 가능하듯이, 공중의 문화도 공중의 문화적 자유와 문화적 평등에 의하여 비로소 창출되고 향유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유주의적 민주사회에서 공중의 문화 형성은 기본적으로 공중이 문화 창조의 담당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에게 문화 창조의 자유와 문화 향유의 자유와 평등의 권리가 부여되고 있다는 이념(理念)에 입각해 있다. 따라서 한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문화적 자유와 평등이 공중의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기본적 인권인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됨으로써 문화의 창조와 향유의 과정에 모든 공중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기본적 인권의 확립에 의한 내면적 자유의 존중은 문학(文學)·예술(藝術), 기타 모든 문화 영역에서의 창작 활동에 개인의 자유로운 예술적 상상력과 그들의 의견 표출을 보장하는 것이 되며, 이로써 공중 내지 민중은 문화적 창조자로서의 위치를 비로소 확립하는 것이 되며, 이로써 참다운 의미에서 문화적 민주주의가 이루어 지게 된다.

이와 같은 전통적 인식은 한 사회에서 지식이나 정보가 강력한 사회적 힘 이 된다고 하는 명제(proposition)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사회에서 일반 공중 내지 민중들이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사회적 힘을 배분함으로써 그들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 하는 것이 된다. 도너휴(G. Donohue) 등은 이와 같은 인식을 다음처럼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 인식은 다름아니라 사회 문제의 해결이 정보 내지 지식의 입력(入力)과 관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 의하면, 만일 한 체계(system) 내에서 이용될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이 충분히 채워진다면, 어떤 쟁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체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전통적 인식은 두 가지 전제에 입각해 있다. 첫째, 정보와 지식의 이용은 체계 내의 구성원 사이의 이해도를 증진시킬 것이다. 둘째, 이용 할 수 있는 많은 정보와 지식의 입력은 한 체계 내에서 정보·지식·커뮤니케이션의 균등을 증진시킬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사회 체계 내에서의 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의 제공 또는 전파는 상이한 계층 집단 사이의 지식과 정보의 격차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문화의 격차와 소외 현상을 줄임으로써 민주사회에서 공공(公共)의 문화, 민족 공동체의 공동 문화(共同文化)를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데니스 맥퀘이(D. McQuail)이 이와 같은 가정을 매스 미디어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는 “매스 미디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일상생활과 보다 먼 장래를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조직화함으로써 개인의 의식과 집단 의식을 구현(俱現)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가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평등화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이념형(理念型)은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함이, 이론바 사회철학의 희망 사항에 지나지 않음이 판명되었고, 또한 사회과학적 경험 연구의 차원에서도 그와 같은 가정이 증명되고 있지도 않다. 또한 거시적 입장에서 지식과 정보의 다량 공급과 전파에 의한 문화적 평등화 내지 문화적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이상주의적 낙관론은 사회계층론(社會階層論)이나

더욱이 사회계급론(社會階級論)의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비관론적 시각은 정치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뚜렷이 엿보인다. 왜냐하면 근대 민주정치 과정이 진전함에 따라서 민주정치의 이념형인 만인의 자유와 평등은 현실적으로는 실질적 악미로서의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가능성으로서의 형식적 자유와 평등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념적으로는 자유와 평등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향유의 가능성을 엿보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유와 평등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특히 근대 사회 그 자체가 내포해 온 경제적·기술적 발전은 가능성과 현실과의 사이에 크나큰 격차와 불평등을 낳게 했다.

정치로부터 소외되었던 일반 대중이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해서 실질적 민주 여론의 주체가 되었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근대 민주정치가 표방하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과 현실은 부르주아 계급에게만 허용된 특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차적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해서 여론 정치라고 하는 이념의 배후에 숨겨진 계급 지배가 현실의 것으로 부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근대 민주정치가 만들어내려는 공중의 정치와 공중의 문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하였다. 공중 문화의 형성은 모든 사람들을 문화 과정에 참여시켜 문화의 창조자임과 동시에 향유자로서의 위치에 서게 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였다. 공중 문화의 형성에서 문화 과정에의 참여자는 창조자와 향유자와의 역할 교환(役割交換)이 자유로운 위치에 서게 되므로, 문화 내용의 창조자가 향유자에게 제공하는 작품이 양자의 공통의 이해 관심(理解關心)으로 맺어짐으로써 창조자와 향유자 사이의 문화 공동체(文化共同體)가 형성되고, 이를 토대로 하는 수준높은 공동 문화가 형성된다. 그러나 자본주의 발전 과정과 더불어 이상과 같은 이념형은 허물어져 갔으며, 재물과 명예를 향유하는 부르주아 계급과 관료적 파워 엘리트 계층만이 문화 내용의 창조와 향유의 문화 과정을 독점하는 불평등 현상을 낳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곧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과 문화적 불평등을 동시에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II

근대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에서도 문화적 불평등 현상을 매스 미디어와 관련시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문화적 불평등 현상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자유다원주의적 미디어 이론과 마르크스주의적 미디어 이론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적 접근 방법의 중심적 틀은 마르크스(K. Marx)와 엥겔스(F. Engels)의 초기 저서의 하나인 「독일 이데올로기」(The German Ideology)에 잘 표현되어 있다. 마르크스는 사회 지식의 생산과 분배에 대하여 일관된 분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분석이 다루어야 할 주요 영역들을 밝히고 개략적 접근 방법을 그의 모든 저서 속에 제시하고 있다. 그 개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독일 이데올로기」의 다음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배 계급의 사상은 어느 시대에서나 그 시대의 지배 사상을 이룬다. 다시 말해서 한 사회에서 물질적 세력을 지배하는 계급은 동시에 지적 세력을 지배하는 것이 된다. 물질적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계급은 동시에 정신적 생산수단도 장악하게 되며, 따라서 정신적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자들의 사상은 정신적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계급의 사상에 종속하게 된다. …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의 계급으로 지배하고 한 시대의 범위와 한계를 결정해 버리는 한 그들이 특히 당대의 사상과 분배를 규제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미디어 사회학자인 머독(G. Murdock)과 골딩(P. Golding)은 상기 구절이 세 가지 명제(命題)를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첫째로 사상(思想)의 생산(生產)과 분배(分配)에 대한 통제가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의 수중에 집중된다는 것, 둘째로 이러한 통제의 결과로서 그들의 세계에 대한 견해와 설명은 강한 공시성(公示性)을 얻어 하위 집단(下位集團)의 사고를 지배

한다는·것, 끝으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지배는 계급 불평등의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물론 「독일 이데올로기」의 중심적 테제는 사상의 생산과 분배의 통제에서 비록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하여 뚜렷이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사상이나 사회 지식의 생산과 분배에서 매스 미디어의 막대한 역할을 감안할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적 생산수단으로서의 매스 미디어 산업을 독점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에 의한 지식과 정보 및 이데올로기적 지배는 필연적으로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사이의 문화적 불평등을 야기시킬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 주의적인 미디어 이론에 따른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디어 산업(포괄적으로 말해서 문화 산업(culture industry)이나 의식 산업(consciousness industry))은 자본주의 사회제도를 정당화시키고 영속화시키는 지배적 규범과 가치를 보강하고 재생산하는 바와 같은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적인 이데올로기적 장치 또는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ideological state apparatus)로 규정된다.

이와 같은 시각은 오소독스적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나 네오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별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은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은 주로 계급과 매스 커뮤니케이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문화적 불평등 현상에 대한 자유다원주의적 미디어 이론 가운데 그 대표적인 이론이 “지식의 갭 가설(Knowledge Gap Hypothesis)”이다. 이 이론은 “정보의 갭(information gap)”. “정보 불평등(information inequality)”. “정보 빈곤(information poor)” 등의 유사한 개념으로 불리고 있다.

“지식의 갭 가설”的 중심적 아이디어는 한 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의 유용성에는 이를 많이 가지는 자와 적게 가지는 자로 구별하며, 더욱이 보다 많은 정보나 지식의 이용이 가능할 경우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의 현상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매스 미디어에 의해서 정보 및 지식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중심적인 문제는 매스 미디어가 시민의 행복과 번영을 확보해 준다는 탈드의 확신을 배반한 것이 되며, 쉴즈(E. Shils)가 지적하듯이 이

전의 우수 문화나 이것이 약간 범속하게 변형된 문화 내용이 일부 계층에 의하여 독점됨으로써 지식·정보·문화로부터 소외되었던 대다수 민중들에게 오늘날에는 발전된 매스 미디어에 의하여 정보·지식을 포함한 광범한 문화 내용이 대량적으로 전달됨으로써 문화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는 낙관론적 대중문화론자들의 주장을 뒤흔들어 놓은 셈이 된다.

“지식의 갭 가설”은 1970년에 티치너(P. T. Tichenor)·도너휴(G. A. Donohue)·올리엔(C. N. Olien) 세 사람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그들은 “한 사회 체계에 매스 미디어 정보의 입력(入力)이 증가할 경우, 각 계층의 인구 가운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은 낮은 계층보다 정보를 빨리 취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들 두 계층 사이의 지식의 격차는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명제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티치너 등의 “지식(知識)의 갭 가설(假說)”은 매스 미디어가 사회 계층 사이의 지식·정보의 격차를 좁히기보다는 오히려 확대시킨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같은 명제는 루이 코저(L. Coser) 등의 사회갈등론에 준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지식의 갭을 초래하는 가장 큰 작용 요인 즉 독립 변수 가운데 하나를 경제나 생활 정도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보다는 교육 수준에서 찾고 있다. 즉 교육을 많이 받은 계층은 교육을 받지 못한 계층과 비교해서 정보나 지식을 보다 많이 취득한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두 집단 사이에 보다 큰 지식과 정보의 격차를 초래시킨다는 것이다. 이처럼 두 사회 계층 사이에 지식과 정보의 격차가 감소하기보다는 증가하는 이유로는 첫째로 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보다 능숙한 독서 능력·이해 능력과 같은 보다 월등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둘째로 보다 축적된 정보와 지식, 셋째로 적절한 사회 접촉의 증가, 넷째로 보다 높은 정보 및 지식의 기억 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런데 지식의 갭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는 특징적 사실의 하나는 전달된 지식이나 정보의 내용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의 단순한 지식 수준의 격차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보나 지식의

수용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나 의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려 하지 않는다. 특히 사회적으로 혜택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 즉 하급 계층들이 왜 공공 정보에 대하여 무관심하려 하고, 이를 덜 접촉하려 하며, 이의 접촉을 회피하려 하는지와 같은 심리적 동기나 사회적 여건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소외 및 문화 소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정보나 지식의 격차를 인구학적 특성으로만 단면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이 그 특징이며, 전파되는 지식이나 정보와 같은 메시지가 수용자 내지 이용자들에게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에 별 관심이 없다.

지식과 정보의 갭에 대한 이상과 같은 초기 연구 이후, 지식의 갭의 결정적 독립변수는 교육 이외에 사회경제적 변수도 거론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인구학적 카테고리 분류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이같은 사회경제적 변수 이외에 제3의 변수, 가령 주제의 유형, 미디어에 의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가 하는 지역 사회의 사회 구조, 문제의 토픽과 관련성이 있는 사회 갈등의 유무, 개인이 정보를 취득하려는 동기와 관심의 수준 등과 같은 변수가 주요 변수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연구자들의 이론적 접근 시각은 갭이 일차적으로 사회의 구조 내지 체계 또는 채널의 성격에 의하여 야기되기보다는 정보 수용자의 성격에 의해서 야기된다고 보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시각은 미국의 전통적인 행동과학적 접근이나 기능주의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이론적 시각에서 볼 때에는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캐플란(N. Caplan)과 넬슨(S. D. Nelson)이 지적하듯이, 만일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잘못이므로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지 사회에 책임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로저스(E. Rogers)는 다음처럼 적절히 요약하고 있다.

“체계(體系)에 대한 질책(system-blame)보다는 오히려 개인에 대한 질책(person-blame)이 사회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정의에 충만되어 있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규정자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한 주장은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개인의 심리적 변수에 촍

점을 맞추도록 작용한다. 따라서 종종 문제 규정자가 개인 수준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은 곧 연구자의 주요 변수가 된다. 텔레비전의 폭력과 공격성, 농민의 근대화 그리고 설득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로저스가 주장한 바를 따른다면, 만일 한 어린이가 텔레비전의 범죄 드라마의 영향을 받고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비난의 대상은 어린이의 페스낼리티나 그 어린이를 잘 교육시키지 못한 부모들에게 돌리는 반면, 그러한 범죄 드라마를 양산하여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 체계의 재정적 구조는 전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일 농민이 근대화의 기술을 채용하지 않았다면, 그 잘못은 농민 자신들에게 있지 그들에게 현대 기술을 전달하는 사람이나 사회 체계에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는 거와 같다. 지식과 정보의 갭 아이디어는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틀에서 왜 커뮤니케이션이 기대한 대로 강력하지 않는가, 왜 직접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는가를 설명하는 아이디어로 나타난다. 따라서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따르면, 갭의 초래는 결국 수용자의 결함과 그 책임에 돌리게 된다.

라틴 아메리카와 제3세계의 일부 커뮤니케이션 책자들은 앞에서 살펴 적이 있는 미국의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고 이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매스 미디어에 의한 정보와 지식의 갭 그리고 불평등 현상을 개인의 차원에서보다는 송신자(送信者)로서의 사회 체계 내지 사회구조적 제약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콘트리라스(E. Contreras)는 구조적 제약성을 사람들로 하여금 발전 과정에 충분하고 유효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사회제도로부터 부여하는 이들의 공유를 제약하는 사회적 장애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구조적 제약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의 구조적 제약은 토지의 소유 정도, 둘째는 대부의 신용도, 농촌 조직체의 참여도·이동성·교육 정도·커뮤니케이션 접촉도·생산성 정도이다. 한편 매카니(E. McAnany)에 의하면,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농촌 빈곤층은 대부분 그들에게 유용한 공공 정보로부터 거의 소외된 상태에 있다고 한다. 그들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문맹이고,

공용어(公用語)를 제대로 사용할 줄도 모르며, 라디오도 없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수탈적이고 그들의 배램을 거의 무시해 온 정부가 전달하는 정보에 대해 회의적이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한다. 벨트란(L. Beltran)에 의하면,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하층 계급의 도시 빈곤층과 농민들은 식량·주택·교육 등에 혜택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접촉률이 매우 낮고, 농촌 지역에서 매스 미디어의 분포와 발전에 관한 정보의 이용도는 다른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보나 지식은 발전 과정에 원인 변수(原因變數)인 독립 변수가 아니라 특정 사회의 거대한 정치적·경제적 맥락 속에서 다른 요인(변수)들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콘트리拉斯는 사회구조적 변동이 야기되지 않는 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활동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보·지식·커뮤니케이션의 격차와 불평등 현상은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으며, 그 개인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구조적 제약 요인, 다시 말해서 제도화된 사회구조적 불평등 요인 그리고 그것의 부수 현상으로서의 매스 미디어 체계의 제도적 특성과 그것에 의하여 생산된 불평등한 정보 내용이 빈곤한 농민 계층과 도시 빈곤 계층 사람들을 필연적으로 정보·지식·문화로부터 소외되게끔 규정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구성적 요인이 곧 포괄적인 의미에서 문화적 불평등을 결정하고 규정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곧 경제적으로 크게 박탈되었거나 소외된 빈민 계층이 역시 정보나 문화로부터 크게 박탈되거나 소외되고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오슐리반(J. O'sullivan)은 라틴 아메리카의 구조적 제약성에 따른 정보 내지 문화의 불평등 현상과 같은 모순 현상을 한계이론(marginality theory)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슐리반의 한계이론은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으로부터 나왔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한 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국가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하나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계성(限界性)이라는 개념은 젤마니(G. Germani)·퀴자노(A. Quijano)·웨포트(F. Weffort) 등의 라틴 아메리카의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는데, 이는 도시의 빈민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기술하려는 데 사용된 개념이다. 도시의 한계 지역은 도시 당국으로부터 버려진 곳이며,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실업자들이며, 너무 가난해서 생활용품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최저 한도의 생활을 영위한다. 더욱이 이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정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와 같은 한계성은 어떤 집단 사람들의 비참여적 상황을 의미하며, 그와 같은 상황은 이들 집단 사람들에게 영구적으로 생산 고용직을 줄 수 없는 경제 체계에서 비롯되며, 그같은 상황은 다른 사회생활의 영역에까지 확대된다. 이른바 'Cultural Superimposition'이라는 아이디어는 바로 이와 같은 한계성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서 한계성은 한 중심적 문화 집단이 다른 주변적 문화 집단을 지배함으로써 형성된다. 오술리반에 의하면, 문화적 한계성으로서의 'Cultural Superimposition'은 주변적 문화 집단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사회심리적 반응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문화적 열등 의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열등한 상황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체계적인 부정은 자기 퍼스낼리티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정체성(正體性:identity)의 상실, 그리고 다른 심리적 효과를 야기시킨다고 한다. 그것은 구조적 변동 이상으로 한계성의 영구화에 기여한다고 한다.

이처럼 경제적 불평등(한계성)은 문화적 불평등을 낳고, 구조적으로 제도화된 경제적·문화적 불평등은 도시 빈곤층이나 농촌 빈곤층에서 심한 심리적 박탈감·소외감·열등감을 일으킨다. 오술리반이 과테말라의 서부 고산지대에 사는 농촌 빈곤층에 대해 현지 조사를 한 결과는 그와 같은 실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들은 아무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배우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배워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배우는 것보다 오히려 일해서 돈버는 것이 더 낫지요. 공부도 게으름을 가르쳐 주는 것밖에 없어요. 어린애들을 위해서는 더욱 나쁘지요. 우리들에게 곡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 우리의 손이고 우리

의 땀이랍니다.'라고들 하였다. 이처럼 그 사람들은 교육을 믿지 않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다. '아무도 우리들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은 라디오에서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라디오는 농민을 보호할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와 같은 법을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에 관해서 알지 못합니다.'"

보우(J. Bowes)·로터(J. B. Rotter)·시맨(L. Seeman) 등에 의하면, 개인이 그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적절한 정보를 발견하는 데 한번 실패하게 되면 다시는 그를 위해서 적절한 정보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될 때 정보 소외는 형성된다고 한다. 따라서 한 개인이 이러한 정보 소외의 상황에 놓여있을 경우, 그에게 공급되거나 전파되는 정보나 커뮤니케이션의 양적인 다과는 별 의미가 없게 된다. 이미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만일 사람들이 그의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환경으로부터 심각하게 박탈되거나 소외되어 있다면,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도피적이거나 소외되어 있다면, 아무리 시기적절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지배적 채널에서 실생활의 경험과 밀접한 프로그램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사용하는 언어(言語)가 쉽고 아무리 유익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비록 조직적 동원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그의 사회경제적 향상이나 변화를 위한 전반적 동기 부여나 감정 이입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III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인 이념의 실현이란 정치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과 함께 문화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화적 자유와 평등이란 각계 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정치적 차원에서 여론의 실질적 담당자이듯이, 문화적 차원에서 문화 창조와 향유의 실질적 담당자

로서 그들의 문화를 창출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역사적으로 각 계층의 문화 창조자에 의해 창출된 문화나 공동 문화 또는 전통 문화를 똑같이 향유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부 계층만이 문화 내용의 창조와 향유하는 과정을 독점하는 문화적 불평등 현상을 낳게 하고, 문화 소외 현상을 초래하게 한다. 이와 같은 문화적 불평등 현상 내지 문화 소외 현상에 대한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접근 방법 가운데 하나가 ‘지식의 갭 가설’이었다. 앞에서 살폈듯이 티치녀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지식과 정보의 갭을 초래시키는 주요 변수로 교육·생활 정도 같은 인구학적 변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근래에 이르러서는 정보상황적 변수를 가장 중요한 작용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변수만 가지고는 지식과 정보의 불평등 현상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이 설명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심리적 박탈감이나 소외 현상을 밝힐 수 없다. 따라서 관심의 초점을 정보나 지식의 소스(source)의 측면, 즉 사회 체계나 사회구조적 측면에 돌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라틴 아메리카 제국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의 접근 방법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들은 정보·지식·커뮤니케이션의 불평등 현상의 근원적 요인을 라틴 아메리카 사회 구조의 제약성 특히 경제 구조의 불평등한 현상에서 찾고 있으며, 그것이 문화적 불평등을 야기시킨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사회 구조의 불평등 현상을 변화시킬 수 없이 문화의 불평등과 이로 인해서 야기되는 심리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불식시킬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지식의 갭, 정보의 갭에 대한 연구에서 추구해야 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문화 소외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볼 수 있다. 시맨(M. Seeman)은 소외를 무력감(powerlessness)·무의미성(meaninglessness)·무규범성(formlessness)·고립(isolation)·자기 소외(self-estrangement) 등으로 나누고 있다. 여기에서 초점이 되는 문화적 소외감은 문화 창조·문화 표현의 제약성과 문화 자원 향유의 불평등으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과 도피적 심리인데, 이는 사회 현실이나 사회경제적 상황의 향상·변화를 위한 동기 부여 등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과

테말라 서부 고산지대의 농촌 빈곤층의 극단적인 예에서 보았듯이, 아무 것도 정부나 관청에 원하지 않는, 배우기를 원하지 않는, 그들의 생활 조건에서 교육의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매스 미디어 내용이 그들의 일상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믿는 그들처럼,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그들을 어떻게 체계 속으로 끌어들이고 문화 소외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그것은 결국 사회 불평등의 근원적 요인, 다시 말해서 사회제도의 구조화된 불평등 요인을 제거하는 길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문화 생산과 배분의 재편성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문화 소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첫 작업은 어떤 계층 사람들이 문화로부터 소외되어 있는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층간의 불평등한 문화 배분과 문화 향유의 격차를 알아내야 하며, 문화 내용을 분석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문화 산업 내지 지식 산업의 구조적 성격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다른 하부 구조 내지 하부 체계(sub-system)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한 유용한 접근 방법의 하나가 갠스(H. Gans)의 심미취향문화론(審美趣向文化論:taste culture)에 입각한 문화 정책이다. 갠스의 이 문화 정책은 문화 상향 이동 정책(文化上向移動政策:the policy of cultural mobility)과 문화적 다원 정책(文化的 多元政策:the policy of cultural pluralism)으로 나뉜다. 첫째, 문화 상향 이동 정책이란 국민 모두가 고급의 취향 문화를 선택하고 수용하여 이를 창조하도록 하는 정책이며, 이를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보다 높은 교육과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정책은 모든 사람들이 중상급 계층(中上級階層)의 수입·교육 정도나 기타 중상급 계층의 특성을 갖추게 된다면, 누구나 중상급의 문화 내용을 선택하고 수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문화적 다원 정책은 문화적 상향 이동 정책이 채택될 수 없는 경우 그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문화적 다원 정책은 사회에 혼존하는 모든 취향 공중(趣向公衆)들이 바라는 문화적 요구와 그들 수준에 맞는

여러 층의 문화 내용을 균형있게 창조하고 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다. 갠스는 이와 같은 문화 정책을 하위 문화 편성(下位文化編成:sub-cultural programming)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에 의하면, 하위 문화 편성의 필요성은 현재의 문화편성제도가 일부 특수 계층의 취향 공중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취향 공중들은 편성에서 제외되어 전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화적 불평등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문화 소외 계층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문화 내용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화적 평등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미감(美感)의 상대주의적 개념과 문화적 다원주의의 일반론에 근거하고 있다. 하위 문화 편성 정책은 문화적 다원성을 더욱 높여주어 그 사회의 전체 문화를 그것이 고급이든 저급이든간에 더욱 발전시키고 풍부하게 해줄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문화 정책을 통해서 현재의 매스 미디어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는 소외된 일부 취향 공중이 어떤 사람들이며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내어 이들에게 자신들의 취향 문화를 좀더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며, 문화 혜택을 균등하게 배분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매스 미디어로부터 문화 혜택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매스 미디어로부터 오랫동안 가장 외면당해 왔다. 취향 문화의 공급 혜택을 가장 잘 받지 못한 집단들은 도시의 빈민 계층이나 노동자 계층 또는 농어촌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저급 문화의 취향 공중들이며, 또한 어느 취향 문화층 공중 중에서나 연령적으로 노년과 중년층이 가장 소외되어 왔다. 우리 나라의 현실정으로 볼 때, 빈민 계층 사람들을 위한 하위 문화 편성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매스 미디어의 편성에서 이들 빈민 계층을 아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매스 미디어는 주로 중상 계층을 강조하는 문화 내용을 공급하고 있는데, 빈민 계층들도 중상 계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취향 문화를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혜택이 나누어질 수 있는 하위 문화 편성의 문화 정책이 요청된다. 하위 문화 편성은 현재의 매스 미디어 내용과는 달리 이들 빈민 계층들의 관심과 이익에 초점을 둔 내용과

주제를 취급하게 되며, 이들 빈민 계층들 자신들의 관심과 이익의 시각에서 문제들을 취급하게 된다. 또한 빈민 계층 자신들의 경험·관심·문제와 관련되는 예술·정보·연예 오락을 제공해 주며, 그들의 가치와 목표를 수용하고 그들의 심미적 기준과 언어 및 예술 형태에 호소하는 문화를 이룩해야 한다.

매스 미디어 문화 내용에서 일부 계층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은 미술 부문에서 더욱 비관적인 상태이다. 전람회나 미술관 또는 박물관에 진열된 미술 작품은 대부분 상급이나 중상급 미술 문화의 작품들이며, 여기에 상급과 중상급 미술을 개작한 중하급 미술을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하급 문화의 미술 작품은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음악·연극·도서 출판 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왜냐하면 문화 소외 계층에게도 그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극도로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소외된 사람들은 미디어 내용물을 수용할 경제적 능력마저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보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소외된 매스 미디어의 수용자를 찾아내는 일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는가의 방법을 찾아내는 일보다도 쉬운 일이다. 따라서 문화의 소외 인구를 밝혀낼 수 있다 하더라도, 소외된 이들의 문화 수용(文化受容)의 경제적 문제가 다소 해결된다고는 하지만 이 계층을 문화적으로 소외시키게 하는 매스 미디어 산업의 근본적인 주요 구조적 문제와 경제적 장애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게 된다. 때문에 하위 문화 편성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매스 미디어의 구조적 변혁이 요청된다. 가령 이를 위해서 매스 미디어는 보다 세분화된 그리고 보다 적은 수의 취향 공중을 위해서도 문화 내용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구조적·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마치 출판인들이 서로 다른 취향 공중의 독자를 대상으로 책을 출판하고 있는 예와 같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할 CATV도 이같은 하위 문화 편성 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